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호남민중의 '작은 반란'에 영남은 화답하라



김행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현(주)넥스트 투자 고문>

“

영남도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 역시 얼마나 지역감정의 벽에 갇혀 있는지를, 호남이 영남정치인을, 영남이 호남정치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의 화해는 일어날 것이다.

”

역사는 영웅을 기술하지만, 역사변동은 민중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호남에선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에서부터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민중의 힘이 역사를 바꿔놓았다. 영남에선 4·19혁명에 결정적 도화선이 된 1960년 대구의 2·28학생의거와 마산의 3·15의거, 그리고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등을 빼 놓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규정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역사에 분노하는 민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언제나 현대사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호남은 4월 25일, 무안·신안 보궐선거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탈 DJ' 시대 도래

이 작은 지역이 전국적 관심이 된 이유는 민주당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를 전략 공천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지 여론조사에선 어렵게 1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MBC가 여론조사기관 '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 무안·신안 유권자 7백2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민주당 김홍업 후보가 33.6%로 무소속 이재현 후보(25.1%)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는 14.2%로 3위를 차지했다. 공

천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로 선두에 나선 것은 DJ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증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떨어질 경우 DJ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홍업씨측 읍소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작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한나라당 기초의원들이 탄생한 것이다. 지난 7일 신안군의회의 황두남 기초의원이 홍업씨 공천에 반발해 지지자 500명을 이끌고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그는 "이젠 김대중이 와고 안박한다"고 일갈했다. 11일엔 민주당 무안·신안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1천여명이 승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홍업씨 공천은 치욕"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DJ나 민주당지도부 그리고 선거지원을 나서겠다는 박지원씨나 이희호여사등 상층부는 꼭꼭 도 않지만, 하층부는 고통스런 몸트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역사의 시작이다.

물론 당내 하층부가 주도한 '작은 반란'은 그 시작이 매우 미약할 것이다. 현재의 여론조사대로 홍업씨가 당선될 수도 있다. 아니 이젠 당선이 되고 좋다. 요는 그의 당선여부는 이미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은 호남에 '탈 DJ'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호남 스스로가 지역감정의 골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는 사

실이다. 내친김에 한걸음 더 나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의 민중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답게 '새로운 정치'를 향해 큰 보폭을 옮기는 중이다.

한국의 미래는 東西가 함께

이젠 호남이 아닌 영남이 화답할 차례다. 혹은 홍업씨가 당선되더라도, 세습정치라고 비난만 해서선 안된다. 아직도 DJ의 우산아래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폄하해선 안된다. 오히려 홍업씨에게 반대표를 던졌으로써 '작은 반란'을 주도한 호남의 민중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한다. 그리고 영남도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 역시 얼마나 지역감정의 벽에 갇혀 있는지를, 호남이 영남정치인을, 영남이 호남정치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의 화해는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東西가 번갈아 써왔다면, 앞으로의 미래사는 東西가 함께 써나가기야 한다. 그 시작은 4·25 보궐선거를 앞둔 호남에서 시작됐다. 영남이 함께 변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창대하리라.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이젠 외교력이 중요하다

12일 끝난 세계박람회기구 사무국(BIE) 실사단의 여수 실사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까르셀 실사단장 등 7명의 실사단은 실사과정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여수의 세계박람회 개최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실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 시민이 보여 준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수시민들의 유치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짧은 기간 신뢰와 많은 정보를 얻었다"며 "개최지 선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사의 성공적 평가는 대통령과 여수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수에 까지 내려와 직접 환영 만찬을 베풀며 실사단에 대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각인시켰다. 여수 시민들도 뿔뿔 뿜어 실사단에 대해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실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여수가 개최 후보지 3곳중 처음으로 실사를 받은 만큼 경쟁국의 실사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후보도시에 대한 실사단의 평가서는 부정적인 지적이 없는 한 BIE총회 투표에서 기초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모로코 당해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모로코는 이슬람국가로는 처음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폴란드도 유럽연합(EU)에 속해 있어 36개 회원국의 표를 상당수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외교력이다.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회원국들을 상대로 치밀한 득표전략을 수립,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 실사에서 대통령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보여 준 뜨거운 열기처럼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유치해낼 수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접고 국정 전념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 측의 개헌 발의 유보 요청에 대해 "각 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개헌 논란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정무관계 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당의 입장과 추진 일정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측의 요구를 일축하고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치권에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약속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고 협의해도 당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면 실질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총선을 통해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 논의의 연속성을 담보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당의 당론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 제시와 논쟁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에 만족해야 한다. 개헌 시기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에 넘기는 것이 순리다. 국민 대다수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그 시기는 차기 국회로 넘기는 게 좋다고 하지 않는가. 무리수를 두어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촉발하기보다는 매듭지을 것은 빨리 매듭짓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문제 등 노 대통령이 당장 챙겨야 할 긴급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헌 문제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인기 말 민생과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논의의 대책 기구를 만들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의료 칼럼

배웅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소식에 지역마다 축제 소식도 풍성하다. 이에 광주·전남·전북 치과의사협회에서도 그 넉넉함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잔치상을 준비중이다. 오는 4월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최초로 "2007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라는 HODEX를 개최한다. 'HODEX 2007'은 '100세 건강은 건강한 치아로--Hi Dent, Smil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남권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남권 치과의사·치과전문대학원생·치과대학생·치위생사·치기공사·치과기자재 업체 등 치과계 종사자 4천500여명 이상이 참가할

강화 교육과 임플란트 환자의 상담 및 관리 등 임플란트 교육을 통해 치과 보조 인력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상포스터 전시, 테이블클리닉 등 푸짐한 경품 추첨으로 치과 가족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대회기간 중 100여개 업체 및 관련 기관에서 200여개의 부스를 열고 각종 치의학 분야에서의 최신의 연구 성과 및 치과기자재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HODEX 2007'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첨단 치과의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써 지역 및 국가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

'치과 엑스포 2007'을 준비하면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전남·전북치과의사 회장이 서로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호남권 치과의사들이 서울 등 다른 지역의 학술대회 등을 가서 듣는 반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논의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치과 기자재 전시를 통해 진료 장비의 현대화에 발맞추고 각종 소규모 학술대회를 통합해 효율성과 강의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치과진단 서비스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술강좌는 치과의사의 학술 욕구를 충족시켜줄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임상적 적용 및 사례·실제 예방·실예에 따른 극복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치과의원 스태프를 위한 서비스

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HODEX가 호남권을 벗어나 국내·외 치과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치과계 최대의 행사로 발전해 나가는 목표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숙박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특급호텔이 하나도 없는 지역의 현실이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더 기여할 여지를 앓아가 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지 인사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숙박을 꺼리면서 이번 행사 중에서 학술대회가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산업분야보다 높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에 특급호텔 등을 유치하는 일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절실히 진다. <광주치과의사회 수석 부회장·HODEX 조직위원장>

기고

김후진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문제가 1년 3개월여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문공부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천여서 규모의 종합공연장을 지상에 건립,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설계자가 지난 10~11일 이틀간을 걸쳐 광주에서 가진 문화전당 설명회에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원이기에 앞서 수십년 동안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해 온 필자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문화전당의 현상공모 당

되던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랜드마크 보강차원에서 지상 12m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일부 시설물(어린이지식박물관)은 너무 단순하고 네모진 건축물로 시각적인 감동을 주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듯 싶다. 문화전당의 문제점은 랜드마크 보완 등 건물의 외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문화전당에 무엇을 담을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처럼 문화전당의 문제점이 산적할

문화수도 조성사업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선작 설계 도면을 검토했다. 구 남도에 슬화관과 구 농협전남본부 자리에 전문 공연장을 지상 상층 건물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당초 당선작의 설계철학이나 예술작품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다만 종합공연장을 지상화한다고 해서 문화전당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3천5백석 규모만을 감안한다면, 2천석규모의 왜소한 공연장 건물 하나를 지상화한다고 해서, 그 지역 아시아 문화전당의 랜드마크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설계가 전문인 필자의 판단으로는 도심 속에 '지상의 초원화'로 문화전당을 설계하기에 3만5천여평의 부지는 너무 좁은 면적이다. 또 모든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게

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3월 28일부터 발효됐다. 문공부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종합계획안에 대한 광주시와의 협의가 4월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기세다. 또 문화전당의 기본설계도 4월까지 마치고, 5월 터파기공사, 11월말 실시설계 완료, 내년초 건축 분공사 착수라는 일정이 짜여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바빠서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다. 광주의 문화수도 건설은 광주의 미래 건설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다.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이며, 문화유산으로 남길 특산물 주춧돌이 돼야 한다. 비록 1, 2년 기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따질 건 따지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우리 세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내야 한다. 진통을 겪지 않고 탄생한 명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시의회 부의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불법이기 이전에 양심을 버리는 일

회사 일로 새벽 4시50분이면 일터로 향한다. 얼마전 출근을 하다가 소용 승합차가 멈춰서더니 식당 가로수 옆에 걸점씩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생활 쓰레기와 폐형광등이었다. 폐형광등은 재활용 불리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승용차까지 타고 와 이

곳에 버리는 지 모르겠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불법이라는 것 이외에도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특히 새벽부터 일어나 거리 청소에서 나오는 환경 미화원들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어른들이 하는 일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배운다.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되겠는가.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대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우리는 서로 만남도 없고, 길이도 없는 세대. 우리는 행복도 모르고, 고향도 잃은 이별마저도 없는 세대. 우리의 태양은 희미하고, 우리의 사람은 비정하고, 우리의 청춘은 짧지 않다. >하늘의 별처럼 우리는 무수히 많지만, 그것은 짧고 진정한 이별은 없다.>

독일인인 보르헤르트(Bolfgang Borchert)는 '이별 없는 세대'(Generation ohne Abschied)에서 '세상의 모진 바람'이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간다고 썼다. 기실, 그가 반어법(反語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만남을 더욱 아름답고 값지게 만드는 게 이별'이라는 메시지다.

기억하는가 당신은. 아련했던 첫사랑과의 헤어짐을. 술한 번민의 밤을 지새우며 '이별 연습'을 했던, 짧은 날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하여, 당나라 장안(長安) 사람들은 버들가지를 꺾어 갈목에 띄우며 재회를 약속했다. 가슴 저린 이별을 뜻하는 '절류(折柳)'라는 말은 예서 비롯됐다. 한

잔의 술을 나누며 서운함을 달래는 풍속(飮散)은 또 얼마나 멋드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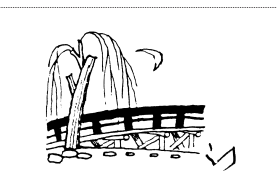
옛날 매년 4~5월이면, 광주전은 황록색의 수양버들 꽃으로 흐드러졌었다. 현대 지금은 전남방직~무등경기장 40구루, 광주이고~발산고 구간 77구루만 남아있을 뿐이다. 80년대 중반, 천변도로를 확장하면서 대부분 잘려나갔다.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가로경관 5개년 계획'도 아쉬운 대목이 많다. 목포·여수·광양 등 남부 해안 9개 시·군에는 후박·만나무, 해송, 내륙 산간지방인 나주·담양 등 13개 지역은 소나무·가시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지만 '남방'이 빠졌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풍치

목(風致木)으로 버드나무를 선호한다. 느릿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어우러진 푸른 숲의 정취(情趣)는 차분하고 여유롭다. 영산강·탐진강·보성강·섬진강변에도 강줄기를 따라 수양버들을 식재하면 어떨까?

/정기태 시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절류(折柳)



알바생 임금 떼이지 않으려면 근무내역 꼼꼼히 기록해야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 부모에게만 손을 빌릴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이 많다. 동생도 편의점에서 몇 달 동안 일했다. 당초 근대 입대로 인해 5개월 동안 일하기로 업무와 약속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 두달만 일하고 그만 뒤야 할 상황에 처했다. 동생은 2달만 채우고 그만뒀어졌다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받아야 할 두달치 월급 중 한 달 임금 65만원은 다 주겠다고 하는데 한 달은 당초 계약했던 5달을 다 못채워 절반

만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동생은 그동안 편의점에서 다니며 꼼꼼히 근무시간을 적어놓은 수첩과 친구들의 진술을 녹음, 업무에 들어대고서야 임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미리 근무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둬야 나중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또 각 대학에서는 해당학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업무에 대항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 구제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